

## (주)비츠로테크

한 발 앞선 기술개발에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까지...  
 『 국가대표 중전기기 수출 중견기업! 』

(주)비츠로테크(대표이사 유병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응집된 기술적 노하우와 시장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여 온 국내 대표적인 중전기기 중견기업이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을 꾸준히 증대시켜 온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기도 하다.

비츠로테크는 1955년 광명전기로 발족해 2000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고/저압 차단기, 개폐기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기관에 꾸준한 납품실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비츠로테크는 1981년 국내 최초로 진공인터럽터(VI, Vacuum Interrupter)를 자체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이러한 V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폐기물 처리사업과 플라즈마 응용사업 및 우주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VI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까지 3곳에 불과할 정도이며, 그나마 중소기업으로는 비츠로테크가 유일하다.

이외에도 비츠로테크의 기술력은 이 기업이 자체 생산해 내는 제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비츠로테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고압기기, 저압기기, 개폐장치, 계전기, 보호기기 등 크게 15개 정도다. 하지만 부품별로 보면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제품에 있어서 배전반과 GIS의 경우, VI, 절연물, 조작기부 등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할 뿐 아니라 첨단 시험설비를 완비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과 시장경쟁력에서 특화된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또 절연물 전문 업체를 자회사로 운영, 철저한 절연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프로모션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제품과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 매년 전체 예산대비 5%에 달하는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비츠로테크가 이처럼 투자에 과감한 이유는 국제적인 트렌드를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즉, 이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존이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 관건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츠로테크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을 모토로 그에 걸맞는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력을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츠로테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에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노력이 합쳐지면서 해외시장에서의 신뢰도는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

비츠로테크는 1994년 처녀 수출상(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수상하면서 수출기업의 기틀을 다졌으며, 1995년 미국의 GENERAC CORP에 자동절체개폐기(ATS)



기중차단기(ACB)



디지털전력보호계전기(RELAY)



진공인터럽터(VI)



진공차단기(VCB)



친환경개폐장치(Eco-GIS)

수출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1998년 중국 합자기업인 우시비츠로를 설립, 넓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2004년 전기 산업 수출유공자(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수출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2006년에는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 수출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1999년에는 품질경쟁력 5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주로 고압차단기와 개폐기 등 중전기기를 생산·판매에 주력해왔지만, 지난 2005년 저압차단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LS산전, 현대중공업과 함께 3대 저압기기 종합 메이커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제 2의 도약을 시작한 비츠로테크는 우주항공, 플라즈마, 양성자가속기, 고진공 케이트밸브, 원전폐액세정 설비, 군수사업 등 특수사업부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전개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츠로테크는 로켓엔진, 펄스 스위치 및 고온 플라즈마, 가속장치, 초고속 밸브, 진공장치 제작 등 우주항공산업 분야까지 그 사업영역을 넓혀가면서 제3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특히, VI 기술을 활용한 진공상태에서의 초정밀접합과 특수공정설계에 대한 독점적 기술 개발을 통해 지난 2002년 11월 발사에 성공한 KSR-Ⅲ 추진장치 제작, 2004년 KSLV-Ⅰ 연소기 1기 고압터보 펌프 수주, 2005년 KSLV-Ⅰ 로켓 추진장치 2기 수주 등 굵직한 우주항공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중부발전의 신보령화력 1,2호기에 12kV 고압 차단기만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전력시험 설비 증설사업과 관련한 대전력 발생 시스템의 전원설비를 수주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비츠로테크는 고체절연가공개폐기, 고차단성능개폐 장치, 건조공기절연 친환경개폐장치, IEC 61850 기반 첨단

디지털계전·계측기기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전력계통 신뢰성 향상과 기술 선진화에 동참하려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비츠로테크는 ‘창의’와 ‘신의’를 기업정신으로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력산업에서 인류 사회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비츠로테크는 이러한 성장 목표를 위해 △연관 사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수주 대상 다변화 등 3가지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재무적 건전성, 효율적 인적자원, 시장선도 기술력 등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비츠로테크 유병언 사장은 “비츠로테크는 5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저력 있는 기업”이라며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발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연혁

- 1955년 07월 광명전기 제작소 설립
- 1968년 01월 중립전기 인수
- 1989년 06월 (주)광명기전으로 상호 변경
- 1989년 12월 (주)광명기전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 1995년 09월 미국 GENERAC CORP에 ATS 수출 시작
- 1995년 10월 계열사 (주)광명전기 신원그룹에 매각
- 1998년 12월 중국 합자기업 우시비츠로 설립
- 2000년 02월 (주)비츠로테크 상호 변경
- 2000년 05월 CI 통합 및 비츠로그룹 선포
- 2005년 12월 비츠로 E&I 설립(절연물 부문)
- 2008년 08월 INNO-BIZ 업체 선정(중소기업청)
- 2010년 01월 특수사업부 대전력저장공급장치 계약 체결 (국가핵융합연구소)